

치매 가정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순창삼합’ 미식관광 인기

남원시, 24시간 대상자 일상생활 분석·응급상황 대응... 100가구 추가 운영

남원시는 8월부터 홀로 지내거나 부부가 모두 치매인 가정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 운영체계 기반의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 대상을 100가구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돌봄 서비스는 치매에 걸리면 일 반적인 노년층이 받는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10종의 스마트 장비를 가정에 설치, 24시간 동안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분석하고 개인별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 낙상, 여름철 운영질환, 실종 등 다양한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측·감지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와의 쌍방향의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112·119 응급신고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와의 기관 간 연계는 물론 '보호자 문자 알림 전



남원시는 8월부터 홀로 지내거나 부부가 모두 치매인 가정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 운영체계 기반의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 대상을 100가구 추가 운영한다.

송'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시민의 안전망이 강화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비 확보에 나서며, 작년 여름 직접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돌봄·안전 체계 스마트화 사업으로 복권기금 3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100가구를 추가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300가구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치매 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매출 1억8000만원 돌파... 양식업·외식업 동반 성장

전통 장류의 본고장 순창의 대표 미식 콘텐츠 '순창삼합'이 미식관광을 통해 1억 8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양식업과 외식업의 상생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순창 전통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의 깊은 풍미를 바탕으로 한 '순창삼합'을 개발하여 관내 대표 식당 3곳(대중, 녹원, 프란체)에서 선보였다. 출시 이후 약 10개월간 총 9,000여 명의 방문객이 순창삼합을 맛보기 위해 순창을 찾았으며, 누적 매출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순창삼합의 핵심 메뉴인 '배추 먹인 장어'는 섬진강에서 직접 기른 고품질 장어를 사용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어 판매액만 6천만 원을 돌파하며 지역 양식업과 외식업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순창군은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순창삼합에 이어 순창담은 초콜릿 등 순창만의 고유 미식 콘텐츠를 적극 육성해 국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K-미식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순창고추장불고기', '순창삼합', '순창담은 초콜릿' 3대 대표 미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연계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주 등 인근 주요 도시에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열어 '장맛 나는 순창'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통 장류의 현대화와 미식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순창삼합에 이어 순창담은 초콜릿 등 순창만의 고유 미식 콘텐츠를 적극 육성해 국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K-미식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고향사랑기부 콜라보 이벤트

10만원 이상 기부 자동 응모

2025 임실방문의 해에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신나는 물놀이 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특별한 콜라보 이벤트를 전개한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리는 2025 아쿠아 페스티벌을 기념

하여 3주간 '고향사랑기부 참여이벤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군은 임실방문의 해를 알리고, 아쿠아 페스티벌의 흥행,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를 추진 중으로,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는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명을 선정, 1만원 상당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임실군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부는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및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https://imssilove.kr/>)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시, 코스모뷰티 베트남 박람회 참가

남원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2025 코스모뷰티 베트남 박람회에 남원 3개 기업과 참가해 기업과 바이어 간의 MOU(양해각서) 및 LOI(구매의향서) 8건 26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며 수출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뷰티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바이어 상담지원 사업으로 추진, (주)코박스, (주)케이, (주)에스비씨 기업과 사전에 베트남 바이어 100명을 대상으로 상품리스트, 제품설명서 등을 배포, 바이어를 박람회를 방문하도록 노력해 큰 성과를 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집중호우 속 실시간 대응으로 군민 안전 확보

순창군이 8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속에서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

4일 오전 8시 기준, 순창군 평균 누적 강수량은 157mm, 풍산면은 최대 174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8월 3일 오후 4시 5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같은 날 밤 10시 20분에는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있따라 발효되었다. 이 경보는 4일 새벽과 오전 중 해제됐다.

군은 호우주의보 발효 직후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경보 발효 시 비상 2단계로 격상하여 215명의 공직자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최영일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과 단체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시를 내리는 등 집중호우 대응을 총괄 지휘했다.

군 산하 부서 및 읍면에서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침수 및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24세대 33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피해 조사와 동시에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세월호 11개소와 임시 가설도로, 양지천·경천 진입로, 강천산 등산로는 선제적으로 통제해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5일 오전에는 전 공직자가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현장 안전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26년 신규·일몰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성호 부시장의 주재로 실국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규 및 일몰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 앞서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전 검토를 거쳐 발굴한 총 78건의 신규 시책을 공유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시책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싱크홀 예방 목적의 수도관 누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노후 맨홀뚜껑 교체사업 △우리동내 화재재난 프로젝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빛물놀이 위치 확인 체계 구축 등이 반영됐다.

또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도시 도약을 위한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 △곤충산업 유망 활성화 사업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구축 사업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남원시관광상품권 서포터즈 운영 등이 검토됐다.

또한 시민 행정 편의성 도모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원스톱 민원콜센터 구축 △스마트 경로당 연계 비대면 진료 추진 △춘향관 디지털 라일월 사업 △폐교 활용 귀농귀촌 복합주거 시설 조성 △찾아가는 스마트팜 복합단지 상담소 운영 등이 논의됐으며, 이번에 발굴한 신규 시책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핵심 시책을 선별해 2026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율러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여건 변화로 기능이 축소하거나 쇠퇴한 사업 10건을 일몰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호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발굴한 시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민선 8기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장류축제 20주년 맞아 대규모 행사 준비 박차

순창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순창의 빛깔,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먹거리·볼거리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 18명이 참석해 실무계획을 공유하고, 각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와 청소년 어울마당,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통역 부스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축제 안전관리와 교통대책,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학교 숲 조성 사업 완료

임실군이 올해 학교 숲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임실기림초, 갈담초, 대리초가 선정되어 올해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은 기존 학교 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학습·소통 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갈담초등학교와 대리초등학교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새로 심고, 임실기림초등학교는 기존에 식재된 수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습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산책로와 벤치를 설치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이 숲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수목마다 표찰을 설치하여,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학교 숲으로 재탄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